

세월 속에 잠자던 신화의 부활

그리스 신화의 재해석에서 북유럽·중국 신화까지

세월의 먼지 속에 잠자던 신화의 영웅들이 부활한다. 이즈음 서점가에는 각종 '신화'를 소개한 책들이 부쩍 눈에 띈다. 현재 출간된 신화 관련서적들은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의 신화를 소개하고, 각 신화들을 서로 비교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다양하게 소개되는 각국의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를 다룬 책은 《그리스 신화의 세계》(현대문학), 《신그리스 신화》(현암사),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푸른나무), 《살아있는 지중해 신화와 전설》(혜안) 등이다. 이 책들은 그리스 신화가 많이 알려진 만큼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한다.

《그리스 신화의 세계》(유재원 지음)는 그리스인의 눈으로 봐야 로마와 중세에 가려졌던 그리스 신화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을 통해 천지창조 신화를 다시 보는 등 현대인의 관점도 유지하며 신화 속에 숨어 있는 상징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대지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천신인 페르세우스의 싸움을 새싹과 태양빛의 싸움으로 보는 식이다. 또한 글쓴이의 풍부한 그리스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원 분석을 통해 신들의 정체성을 밝히기도 한다. 이 책은 한국학자가 쓴 본격적인 신화학 서적이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미하엘 쾰마이어의 《신그리스 신화》 역시 고리타분한 신화의 세계에 가벼운 옷을 입힌다. 옛날이야기를 하듯 신화의 세계를 풀어나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다. 헤르메스가 죽은 소의 창자로 현악기를 만들었다는 신화에서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를 떠올리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피테의 시를 인용하는 식이다. 단순히 신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심층적 의미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따져본다는 점에서 앞의 책과 닮았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시를 떠올리는 것은 유시주의 《거꾸로 읽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피테가 아니라 김남주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우리 입장에서 재해석하려는 글쓴이의 의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김영삼 정권 초기의 개혁을 '트로이의 목

잠자고 있던 신화 속의 영웅들이 되살아난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무 신화까지 다양하다. 신화를 소개하고 재해석하거나 서로 비교하는 신화관련 출판물은 미래를 예측하는 상징체계이기도 하다.



· 테베스로 가는 길목에서 스팅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푸는 오이디푸스 (왼내)
· 북유럽 신화의 '제우스'인 오딘과 '생각'과 '기억'을 상징하는 두 까마귀.



마'에 비유하거나 피그말리온 효과를 설명하면서 좀더 너그럽게 남을 사랑하자고 말한다. 신화가 끊임없이 당대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책이다.

이에 반해 《살아있는 지중해 신화와 전설》(홍사석 지음)은 그리스를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신화에 접근한 책이다. 다른 책과 달리 먼저 지리학적, 문화적으로 그리스를 소개한 뒤 신화를 다룬다. 그리스 신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중해 주변의 신화 역시 포함했다. '신-신의 아들-인간-영웅' 등 신화가 변화함에 따라 등장하는 주인공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했다. 해석보다는 그리스 신화 원전에 더 가까운 책이다.

그간 신화 출판이 그리스·로마 신화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북유럽신화여행》(금호문화), 《중세의 신화》(현대지성사), 《베오울프》(문학고지성사)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유럽 신화를 소개한다. 아직까지는 원전 소개에 치우치지만, 'Thursday', 'Wednesday', 'Friday' 등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 '토르', '오딘', '프리그'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이들 신화가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강웅천의 《북유럽신화여행》은 이런 북유럽 신화를 다룬 책이다. 북유럽 신화는 '신과 거인의 대결'을 노래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비해 어둡고 비관적이다. 이 책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소설 형식으로 신화를 풀어 해석보다는 이야기 전달을 우선했다.

이런 사정은 노마 로어 구리치의 《중세의

신화》와 《베오울프》도 마찬가지다. 《중세의 신화》는 전제하는 각 신화의 사본들을 살펴본 뒤, 그 중 정보로 삼을 만한 자료를 선별하여 《베오울프》에서 《시드》에 이르는 유럽 각국의 신화를 모았다. 이들 중세 신화는 영웅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고대 신화와의 시간적 격차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신화와 설화가 뒤섞여 이후 산문 장르가 나오게 된 근원이라는 점에서 읽어볼 만하다.

불확실한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해설

동양권에서는 중국 신화에 대한 책이 많다. 서유원의 《중국창세신화》(아세아문화사), 원가의 《중국신화전설》(민음사)가 그것. 《중국창세신화》가 한국학자에 의해 방대한 중국 창세신화를 유형별로 정리한 책이라면, 《중국신화전설》은 중국의 신화학자인 원가가 필생의 작업으로 마무리한 신화와 전설의 집대성이다. 이 책들이 보여주는 동양적인 신화의 세계는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 있어 다른 신화 관련서적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밖에 세계 각국의 여러 신화를 서로 비교한 책도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까치)은 세계의 신화를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7개 주요 전통 문화권으로 나눠 소개한다. 각 지역마다 신화에 대한 해제를 달고, 신이나 영웅을 그림과 함께 다채롭게 소개한다. 이 책은 사전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해당 항목이나 다른 신화와 유사성을 찾기 쉽다.

J.F. 비얼레인의 《세계의 유사신화》(세종서적)는 신화간의 유사성을 천착한 책이다. 세계 각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창조신화', '초기시대', '홍수신화' 등을 살핀다. 홍수신화에는 노아 이야기, 인도의 마누와 물고기, 바벨로니아의 우트나피시뎀, 하와이의 홍수신화 등이 수록돼 각 신화간의 관련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크 브로스가 쓴 《나무의 신화》(이학사) 역시 각 신화를 비교하지만, 그 방법이 특이하다. 이 책은 각 문명권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북유럽 신화가 담긴 《에다》에 등장하는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물푸레나무를 비롯하여 제우스를 대표하는 참나무, 디오니소스와 관련있는 포도나무 등 여러 신성한 나무들을 통해 신화의 또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기독교의 등장으로 이들 나무에 대한 제의가 사라지고 십자가만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각 문명권의 신화와 기독교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흥미롭다.

이같은 신화 관련서의 출판에 대해 신화학자인 유재원 교수(49, 외대 언어학과)는 "최근 문화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마땅한 책이 없어 신화 서적을 찾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새로운 해석 체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화를 통해 미래 사회를 상상하는 일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도. — 김연수 기자